

# 여성 피아니스트 고봉경(高鳳京, 1906~?)의 음악 활동과 삶의 배경

조윤영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1. 들어가며
2. 신앙과 근대, 애국: 가정환경
3. 피아니스트로 성장: 교육과정
4. 음악가 이후의 삶: 소신과 신념
5. 나가며

부록 1. 고봉경의 생애 및 주요 활동

부록 2. 고봉경의 라디오 방송 연주 목록

## 개 요

고봉경(高鳳京, 1906~?)은 1906년 경성에서 태어나 경성여고보와 이화여전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와 다양한 활동을 한 여성 피아니스트이다. 그러나 고봉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오케스트라로 지칭되는 중앙악우회의 피아니스트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고봉경은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고봉경의 집안은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 예배당으로 가옥을 바칠 만큼 한국 기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김마리아(金瑪利亞)를 비롯하여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집안이었다. 1906년 언더우드(H. G. Underwood)의 주례로 결혼한 아버지 고명우(高明宇)와 어머니 김세라(金世羅)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과 근대적 교육을 하면서도 민족의 전통인 유교교육과 애국·민족 운동을 강조하였다. 이에 고봉경은 유년시절 미션스쿨에 진학하지 않고 관립학교에서 일제의 교육을 받았으며, 전문음악교육을 받기 위해 이화에 진학한 후에도 이화의 딸로 남지 않고 미국에서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돌아와 여동생 고향경(高鳳京)과 경성자매원을 경영하며 사회사업에 매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였다.

고봉경의 생애를 통해, 그녀의 삶이 음악적 재능을 개인의 음악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음악을 사회와 여성의 계몽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독교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고봉경, 고향경, 고명우, 웨슬리언 음악학교, 경성자매원

## 1. 들어가며

고봉경(高鳳京, 1906.11.16.~?)은 1906년 경성에서 태어나 경성여고보와 이화여전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와 다양한 활동을 한 여성 피아니스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봉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오케스트라로 지칭되는 중앙악우회의 피아니스트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음악 분야의 식민지기 연구는 이전에 비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메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특히 인물 연구에서는 이름만 알려진 음악가 중에 한국의 음악 역사에서 드러나야 할 인물들이 연구되지 못하고 있어 근대음악사의 빈틈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sup>1)</sup>

고봉경을 연구하면서 한 음악가의 활동이 음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신앙, 개화, 애국, 봉사까지 넓게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 연장선에 한국의 기독교, 근대화, 독립운동, 교육, 사회사업의 연결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연구가 그가 속한 집단의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준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봉경에 대한 자료를 찾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첫째, 각종 자료마다 그녀의 생몰년도 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고봉경의 출생 시기는 부모가 결혼한 1906년부터 여동생이 출생한 1909년 사이로 추정하여 고봉경 자매가 다녔던 경성여고보의 자료를 찾았으나 이후 이화역사관의 이력서 자료를 통해 1906년 출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많은 자료에서 여동생 고헌경(高鳳京, 1909~2000)의 이름과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고봉경과 고헌경의 가운데 글자인 봉(鳳)과 황(凰)이 한자가 비슷하고 두 글자 모두 봉황새를 의미

1)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민족음악학회가 발간하는 『음악과 현실』의 '한국 음악가 사전' 연재(連載)에 참여하고 있으며, 첫 번째 인물로는 정사인(鄭士仁, 1882~1958)을, 두 번째 인물로는 고봉경을 다루었다. "한국 음악가 사전 (1) 정사인," 『음악과 현실』 67 (2024), 275-279., "한국 음악가 사전 (2) 고봉경," 『음악과 현실』 68 (2024), 266-271. 고봉경에 대한 집필은 이 논문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하기 때문에 당시의 자료를 기록하거나 해독할 때 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고봉경은 아버지 고명우(高明宇, 1883.3.13.~?)와 한국전쟁 중 납북되었다. 특히 고헌경이 1950년 6월 초에 출발한 유럽 강연을 마치고 1957년에 돌아왔을 때, 이미 아버지와 언니가 납북되면서 집안의 책, 기구, 중요한 자료들을 모두 가져갔다고 했다.<sup>2)</sup> 넷째, 고봉경은 미혼으로, 남편과 자식 등 가족을 통한 자료 보관 및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 그나마 연구자료가 남아있는 여동생과 친척들을 역추적하여 고봉경의 연구가 가능하였다. 이번 연구가 고봉경의 연구뿐 아니라 그녀와 연관된 다양한 근대의 모습을 확장하는데 작은 지표가 되길 바란다.

## 2. 신앙과 근대, 애국: 가정환경

고봉경은 근대화 교육을 받은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고봉경의 부모 역시 양가가 일찍부터 개화된 집안이었다. 특히 이 두 집안은 초기 기독교가 수용되던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며 동향(同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고봉경의 조부 고헌운(高學崙)은 황해도 장연군 출신이다. 1883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소래마을)에는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송천교회(솔내교회, 소래교회)가 설립되었다. 이 지역은 인삼 장수였던 서상륜(徐相崙, 1848~1926)이 만주에서 번역된 복음서를 몰래 들여와 자신의 고향 대신 삼촌이 살던 장연으로 와서 성경을 보급한 곳으로, 그로 인해 이곳은 기독교의 시초가 되었다. 1885년에는 이 마을의 대다수가 이미 기독교 신자였고, 이들은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아 한국 기독교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인물들로 성장하였다.

고학운도 교회를 다니며 선교사들의 한글 공부와 통역을 맡았다. 그는 1890년경 북장로교 선교부의 요청으로 선교사의 통역을 맡아 서울로 이주하였고, 얼마 후 1892년 부산 선교부의 한국인 조사(助事) 요청에 발탁되어 부산

2) 정석기, 『살아있는 등불』 (서울: 기독교문사, 1993), 206.

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그는 부산에서 브라운(Hugh Brown, 1867~1896) 의사와 일하였으나 1894년 그가 한국을 떠나자 송실학교 설립자인 베어드(William Baird, 1862~1931)의 조사가 되었고, 베어드도 부산을 떠난 후에는 어빈(Charles. Irvin, 1869~1933) 의사와 일하였다. 고학운은 여러 의료 선교사와 일하면서 그들의 삶을 가까이 지켜보았고 특히 어빈의 영향을 받은 그의 아들 고명우도 선교병원에서 어빈의 조수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림 1] 부산 최초 근대학교(한문학교)의 선교사와 학생들<sup>3)</sup>



고봉경의 아버지 고명우는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에서 출생하였다. 1895년 베어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 영어와 음악을 배워 영어가 매우 유창하였으며 특히 음악에 재능을 보여 10대에 정동

3) 왼쪽 끝에 베어드 선교사, 그 앞에 갓을 쓴 서상륜, 오른쪽 끝에 서 있는 고학운, 그 옆에 베어드의 처남 아담스(James Adams, 1867~1929) 선교사.

감리교회를 다니며 오르간을 반주하기도 하였다. 고명우는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1906년 김세라와 결혼하였고 1913년 세브란스 의학교 제3회 졸업생으로 의사가 되었다. 그의 전공은 외과 전문으로, 러들러(Alfred Irving Ludlow, 1875~1961) 교수에게 인턴 과정을 지도받았다. 당시 미국은 조선으로 미국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금광 개발이 한창이었는데, 1914년 고명우는 세브란스의 요청으로 황해도 수안군 남정리 수안금광에서 금광 작업으로 부상 당한 조선인 노동자를 치료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의 분원인 수안금광병원장으로 부임하였다. 이곳에는 딸들이 다닐 교회와 학교가 없어 사비로 남정교회와 은진여숙(隱眞女塾)을 짓고,<sup>4)</sup> 여아들을 위한 4년제 초등교육을 실시하여 고봉경 자매와 동네 아이들을 교육하였다. 고학운이 한자를 담당하였으며 영어는 고명우가 맡았다. 학교는 매일 아침 예배로 수업을 시작하였고,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고명우는 이곳에서 6년간 근무하였다.

[그림 2] 고봉경의 아버지 고명우



4) '은진'은 마을의 뒷산 이름이다.

고명우는 가족과 함께 1918년 다시 경성으로 이주하여 세브란스 강사 및 외과학교실 책임자를 맡았고, 1938년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였다. 신앙심이 깊은 그는 1922년 남대문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으며, 1926년에는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의과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1928년에 귀국하였다. 그는 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외과 명의로, 전국을 돌며 위생 관련 강연 및 의료구호 등 의료봉사를 하였고,<sup>5)</sup> 1938년 학교를 사임하고 원효로에 개원하였다. 이후 한국전쟁 중 납북되었다.

고명우의 둘째 딸 고향경은 자신이 초대총장을 지낸 서울여자대학교에 아버지의 이름을 붙인 기념관을 만들어 고명우라는 이름을 기억하고자 하였다.

[그림 3] 서울여자대학교 고명우기념관 표지석



고봉경의 외가 역시 황해도 송천이 고향이며, 기독교 신앙이 두터운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가문이다. 송천마을의 첫 번째 신도인 김성섭(金聖蟾)은 고봉경의 외증조부이다. 그는 황해도에서 이름난 거부(巨富)로, 9남매를 두었고,<sup>6)</sup>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신앙을 갖게 하였다. 첫째 아들 김윤방(金允邦, 1861~1894)은 김함라(金函羅), 김미림(金美艷), 김마리아(金馬利亞, 1892~1944) 세 딸을 두고 서른셋의 나이로 병사(病死)하였다. 세 딸은 모

5) 주로 전염병에 대한 위생 강연을 하였고, 1933년 7월 낙동강 대홍수 때 고명우와 의료진들이 의료구호팀으로 긴급 투입되었던 일화는 유명하다.

6) 다섯째 아들 김인순과 둘째 딸 김노독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두 정신여학교(연동여학교) 출신으로, 그중 김함라와 김마리아는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이다. 둘째 아들 김윤오(金允五, 1865~?)는 서울로 거처를 옮겨 서울역 세브란스병원 앞에 김형제 상회를 열고, 애국계몽단체인 서우학회(西友學會)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조직을 이끌었다. 셋째 아들 김윤렬(金允烈)은 장티푸스로 일찍 사망하였다. 넷째 아들 김필순(金弼淳, 1878~1919)은 배재학당을 거쳐 1899년 제증원에 들어가 1908년 제1회 졸업생으로 의사가 되었다.<sup>7)</sup> 첫째 딸 김구례(金求禮)와 셋째 딸 김순애(金淳愛, 1889~1976), 넷째 딸 김필례(金弼禮, 1891~1983)는 정신여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김구례는 독립운동가이자 목사 서병호(徐丙浩, 1885~1972)와 결혼하였고, 김순애는 이후 중국 남경 명덕여자학원에서 수학하며 독립운동가 김규식(金奎植, 1881~1950)과 혼인하였다. 김필례는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교육계에 종사하였고, 대한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와 근우회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다.

이 집안은 자신의 집을 소래교회 예배당으로 내어줄 만큼 기독교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언더우드(Horace Underwood, 1859~1916), 에비슨(Oliver Avison, 1860~1956) 등 선교사들과의 관계도 각별하였다. 그리하여 언더우드는 그들의 자녀 이름을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지어줄 정도로 이들에게 애정을 가졌다. 김윤방의 세 딸 김함라, 김미련, 김마리아와 김윤오의 외동딸 김세라(金世羅, 1885~1971)가 그 이름들이다.

김윤오와 김경애(金敬愛)의 외동딸 세라의 이름은 구약의 사라(Sarah)에서 따왔다. 김세라는 사촌들처럼 정신여학교에 제1회 입학생으로 들어갔지만 집안 사정으로 중퇴했다. 그러나 다른 친척 형제들처럼 신교육을 받았으며 언더우드가 세운 새문안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을 키웠다. 1906년 신촌에 있는 언더우드 집에서 언더우드의 주례로 고명우와 결혼하였으며, 1남 3녀를 두었다.

7) 우리나라 최초 7인의 의사 중 한 명으로,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복만주로 망명하였고, 북쪽의 제증원이라는 뜻으로 북제(北濟)진료소를 열어 독립군을 치료하였으나 일본인에게 독살당했다. 아들 김덕봉(金德奉)도 의사로 간도 용정 제창병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셋째 아들 김덕린(1910~1983)은 김염(金鹽)이라는 예명으로 1930년대 중국 영화계에서 활동했던 유명 배우이다.

고봉경은 이들의 큰 딸이다.<sup>8)</sup> 첫째 딸 봉경과 둘째 딸 황경은 두 살 터울로 둘은 서로 의지를 하며 지낼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아래 두 동생과는 나이 차이가 컸다. 부모가 결혼한 해에 태어난 고봉경은 어릴 때부터 언더우드와 에비슨이 사역하는 남대문교회에 다녔다. 고명우는 자신의 딸들에게 늘 지도력 있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성과 동일하게 교육하였고, 세계의 여성 지도자에 대한 영문책을 번역해 읽게 하였다. 여동생 고향경은 그러한 아버지의 영향으로<sup>9)</sup> 당시 여성들은 기피하였던 법학과 경제학, 사회학을 공부하였다.

[그림 4] 고봉경의 가족사진



- 8) 셋째 딸 고난경(高鸞京, 1919~?): 경기여고와 동경여자외과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시간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다. 1945년 김삼덕과 결혼하였고, 해방 후 보건위생부 보건관, 세계보건기구(WHO) 보건관을 지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카고 보건부 모자보건책임자를 역임하였다. 막내 아들 고원영(高元永, 1922~?): 경기중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미생물학 박사를 받았다.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세균학연구소에서 근무하다 개업하였다.
- 9) 황해도 은진여숙과 경성여고보를 마치고 일본 도시샤여자전문학교 영문과와 도시사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언니 고봉경과 같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바버 장학금(Barbour Scholarship)을 받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방 후 대한어머니회를 창립하였고, 이화여대 교수와 서울여대 초대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뿐 아니라 고명우는 사 남매가 최소한 교회에서 찬송가 반주는 할 정도의 음악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집에 풍금을 사놓고 직접 가르쳤다.<sup>10)</sup> 그는 가정에서 가족 오락의 하나로, 온 가족이 모여 피아노나 오르간 반주에 합창하는 것을 직접 실천해 보았더니 유익하다며 신문 독자들에게 권유하기도 하였다.<sup>11)</sup> 그래서 고명우의 자녀 모두 10세 전에 찬송가 반주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한 아버지의 열정과 음악에 대한 효과는 고봉경이 음악을 전공하는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sup>12)</sup> 자녀들의 유년시절에는 영어와 한문을 열심히 교육해 기독교, 유교, 개화 등을 기반으로 우리 문화를 존중하도록 하여 자녀들이 나라와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인물로 성장하게 이끌었다. 그리하여 고명우는 경성에 돌아와서 자녀들을 미션스쿨에 보내지 않고, 일제를 알아야 한다고 고봉경은 2학년, 고헌경은 1학년부터 관립학교인 경성여고를 다니게 하였다.<sup>13)</sup>

이처럼 고봉경의 친가와 외가는 모두 송천(솔네) 지역에서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었고, 이 가족들은 개화와 근대교육을 몸소 보여준 인물들로, 고봉경은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으며 근대화에 눈을 떴으며 선교사와 가족, 친척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근대 교육과 서양 문화를 체험하며 성장하였다.

### 3. 피아니스트로 성장: 교육과정

경성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피아노 연주자로 이름을 알린 고봉경은 어린 시절부터 다니던 교회와 그곳에서 만난 선교사들, 음악에 조예가 깊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서양음악을 가깝게 접하며 성장했다. 실제로 고봉경은 음악을 좋아

10) 림영철, 『바람 고헌경: 그의 생애와 교육』 (서울: 삼형, 1988), 30.

11) 고명우, “우리 집의 취미와 오락은 (二) 온 가족이 함께 교외로 산보합니다.” 『중외일보』, 1929. 11. 19.

12) 고헌경도 상당한 음악 실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1961년에 만들어진 서울여대 《교가》는 고헌경이 작사, 작곡하여 지금도 불리고 있다.

13) 림영철, 『바람 고헌경: 그의 생애와 교육』, 31-32.

하는 아버지와 예배당의 찬미가에 영향을 받아 10세부터 아버지에게 제대로 오르간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음악을 전공하게 된 계기라 하였다.<sup>14)</sup>

고봉경은 경성여고보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레슨받기 시작했다. 합커크(Myrtle Hopkirk)<sup>15)</sup> 선교사에게 개인 교습을 받으며 같은 해 학예회 독주자로 뽑혀 3백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것이 고봉경의 첫 무대였다.<sup>16)</sup> 고봉경은 학교에 재학 중에 여자강연회에서 피아노 독주를 맡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으며,<sup>17)</sup> 경성여고보 사범과까지 졸업을 한 후,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1925년 전문학교를 인가를 받은 이화여전에 입학하여 음악과 제2회 졸업생으로 학교를 마쳤다.<sup>18)</sup> 고봉경은 사범과와 음악과를 모두 공부하며, 이미 음악을 지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고명우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며 병원 근처에 거주하고<sup>19)</sup> 바로 옆 남대

- 14) 고봉경, “학예회의 피아노 독주,” 『중앙』 8 (1934), 48.
- 15) 피아노와 성악을 전문으로 배웠다. 방사선과 의사인 남편 클라렌스 합커크(Clarence Hopkirk) 과 1921년 내한하여 서울외국인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다.
- 16) 고봉경, “학예회의 피아노 독주,” 48.
- 17) 6월 5일 밤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여자교육회 주최 여자강연회에서 개회 시작으로 고봉경의 피아노 독주가 있었다. “유감 천만의 사(事),” 『동아일보』, 1920. 6. 7. 고봉경은 자신의 첫 무대를 합커크에게 지도받은 이후로 회고하였는데, 합커크는 1921년에 내한하였으므로 학예회는 그 이후의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기사의 연주회는 1920년에 열렸기 때문에 고봉경의 기억 착오이거나 이 연주를 자신의 첫 무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18) 초기 졸업생으로는 제1회 졸업생(1927. 3. 18. 졸업): 김사라, 김은실, 한만복, 제2회 졸업생(1928. 3. 16. 졸업): 고봉경, 이덕영, 이복선, 제3회 졸업생(1929. 3. 15. 졸업): 김영의, 이금동이 있다.
- 19) 고명우의 1931년 남대문교회 장로 주소록의 주소는 남대문교회 주소지인 경성 남대문동 5 정목 115로 되어있다. 남대문교회사 편찬위원회, 『남대문교회사』 (서울: 남대문교회사 편찬위원회, 1979), 282. 1930년대 작성한 고헥경의 이화여전 이력서와 1976년 6월에 작성된 고헥경의 신원진술서에는 본적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115번지로 되어있어 위의 주소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184번지로, 고명우가 개원한 원효로 병원 근처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명, 『조선시대 역사인물의 재조명』 (서울: 경인문화사, 2015), 224. 남대문교회와 세브란스병원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고봉경의 웨슬러언 음악학교의 주소록에도 고봉경의 주소가 세브란스(Severance Hospital Comp., Seoul, Korea)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명우가 세브란스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이

문교회를 다녔다. 가족과 함께 남대문교회를 다닌 고봉경은 이 교회의 성가대 반주자를 담당하였다. 고봉경은 박서양(朴瑞陽, 1885~1940)<sup>20)</sup>의 여동생 박양무(박양빈(朴陽斌))의 후임으로 반주자를 맡게 되었는데,<sup>21)</sup> 세브란스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 신필호(1892~1952)<sup>22)</sup>와 결혼한 박양무가 남편의 병원 이동 때문에 황해도 연안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반주자를 사임하였다.

성가대의 지휘자는 피아니스트 박경호(朴慶浩, 1898~1979)였다. 박경호는 숭실학교와 중국 금릉대학에서 수학하고 정신여학교와 이화여전에서 근무하며 중앙악우회의 멤버로 활동하였고 1928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대학(University of Cincinnati)으로 유학을 다녀와 다시 이화여전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의 활발한 음악계 활동은 박경호를 식민지조선 음악계의 핵심 멤버이자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만들었다.

그런 박경호는 여러 가지 활동에서 고봉경과 인연이 깊다. 이 둘의 인연은 남대문교회 성가대뿐 아니라 정신여학교와 이화여전, 중앙악우회에서도 이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Wesleyan College, *The Vetteropt: Annual of Wesleyan College*. (Macon: Senior Class of Wesleyan College, 1933) 이곳은 현재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연세세브란스빌딩 자리이다.

- 20)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면허를 딴 세브란스 의학교(제중원 의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김필순과 동기이다. 그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승동교회에 음악과를 설치하고 조선정악전습소를 다녔다.
- 21) 남대문교회사 편찬위원회, 『남대문교회사』, 151. 박양무(박양빈)는 이화학당을 마치고 북경대학에서 2년간 수학 후 귀국하여 정신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정구충, 『韓國醫學의 開拓者 1』 (서울: 동방도서, 1985-1987), 625. 1918년 신필호와 결혼하였고, 남편의 성을 따서 신앙무 혹은 신앙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그녀의 연주 활동으로 1920년 피아노 독주 기록과 1930년대 라디오 동요 반주 등이 확인된다. 『동아일보』, 1920. 6. 11., 1932. 11. 3., 1938. 1. 22., 『조선일보』, 1933. 6. 4. 외. 1969년 6남매를 잘 교육시킨 공로로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았다. “박양무 여사 등 7명 표창,” 『매일경제』, 1969. 5. 8. 외. 장남 신한수(申漢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를 지냈고, 손자 신희철(申熙澈) 역시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에서 일하였다. 박양무의 차녀 신재덕(申在德, 1917~1987)은 이화여대 음악대학 교수를 지냈다.
- 22) 세브란스의학교 1914년 제4회 졸업생으로, 1925~1928년은 황해도 연안의원을, 1928~1952년까지는 인사동에서 신필호의원을 운영하였다.

진다. 박경호가 선생으로 있던 정신여학교는 고봉경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척들이 거쳐 간 학교이다. 특히 고봉경의 고모할머니가 되는 김필레는 정신여학교의 교사를 지냈을 뿐 아니라 학교의 음악 부분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김필레는 정신여학교를 마치고 미션스쿨인 일본 동경여자학원에 유학하면서 학교의 승인을 받아 감리교계 종교학교인 영화(英和)음악전문학교를 동시에 다녔다. 음악을 공부한 경험은 유학 후 김필레가 정신여학교 교사로 부임했을 때 학교의 음악 활동부터 악기 구입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김필레는 미국 유학 시절에 한인 교회에서 피아노를 반주할 정도의 실력자였다.<sup>23)</sup>

정신여학교는 기독교계 학교답게 음악을 주요 교과목으로 두고 실력 있는 음악선생들을 초빙하였다. 김형준(金亨俊, 1884~?)은 당시 대표적인 음악가이자 교육자로, 1920~30년대 정신여학교의 음악 수업과 합창을 맡아 가르쳤다. 박경호는 1926년부터 미국 유학을 가기 전인 1928년까지 이 학교에 근무하며 건반 수업을 지도하였다.

이화역사관에 남아있는 고봉경의 이력서 자료를 보면 고봉경은 1928년 4월부터 1929년 3월까지 정신여학교 교원으로 일하였다고 적혀있다.<sup>24)</sup> 이 시기는 1928년 봄 박경호가 미국 유학을 떠난 시기와 겹치는데, 정신여학교의 교원 명단에는 고봉경의 재임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만약 이화역사관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박경호가 유학을 떠나자 공석인 건반 수업 선생을 다양한 경로로 정신여학교와 연관이 있는 고봉경이 임시로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29년 3월에 이화여전을 졸업한 고봉경은 1926년부터 유학 전까지 이화여전을 출강했던 박경호와 사제지간이었다. 피아니스트 박경호는 피아노를 전공하는 고봉경에게 학교 밖에서도 함께 활동하며 그녀가 음악계에서 적극

23) 김필레는 1913~1916년까지 동경여자학원 고등부에 다녔고, 1914~1916년까지 영화음악전문학교를 다녔다. 이정숙, 『쉽 없는 열정: 나라, 신앙, 교육을 향한 김필레의 삶』(서울: 나무와숲, 2024), 57-59.

24) 고봉경은 1929년 4월부터 협성여자신학교 교원으로 일하였다.

적인 행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의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중앙악우회를 꼽을 수 있다.

중앙악우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관현악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음악 단체로, 1926년 조선 음악계를 대표할 오케스트라 출현을 전제로 하여, 선교사 부츠(Florence Boots, 18896~1977)<sup>25)</sup> 여사, 박경호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발기인인 박경호는 고봉경을 비롯하여 홍난파(洪蘭坡), 홍재유(洪載裕), 최호영(崔虎永), 이영세(李永世), 곽정순(郭正淳), 김재호(金載鎬) 등의 단원을 모아 주 1회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연습하였다.<sup>26)</sup> 부츠 여사를 제외하고 유일한 여성인 고봉경은 대부분 전문연주가인 단원들 사이에서 아직 전문학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연주실력뿐 아니라 박경호와 그동안의 음악 활동을 통해 쌓아온 신임을 바탕으로 중앙악우회 단원으로 합류하였을 것이다. 고봉경은 중앙악우회의 반주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중앙악우회의 창단연주회를 비롯하여 중앙악우회의 연주마다 피아노 연주자로 무대에 올랐다.

[그림 5] 1930년 2월 17일 중앙악우회 관현악단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여성이 고봉경)



- 25) 치과의사인 남편 존 부츠(John Boots)와 함께 선교사로 내한하였다. 비버대학교 제네바대학에서 음악을 배웠으며, 이화여전, 서울외국인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 26) “악우회,” 『동아일보』, 1926. 12. 1., 중앙악우회의 설립과 목적, 음악 활동 등에 관해서는 조운영, “식민지조선 음악단체 중앙악우회(中央樂友會) 정체성 연구,” 『음악과 문화』 35 (2016), 83-116 참조.

고봉경은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선교사들과의 관계가 폭넓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배운 영어 덕분에 영어 실력도 우수했다. 고봉경은 빈 음악원(Wien Konservatorium) 출신인 고어만(Catherine Gorman, 1885~1966)<sup>27)</sup> 부인이 이화여전에 출강하기 이전부터 그녀에게 피아노 개인 지도를 받았고, 중앙악우회의 지휘를 담당하던 부츠 여사와의 관계도 각별하여 부츠 여사의 바이올린 독주는 주로 고봉경이 반주를 맡았다.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경성을 중심으로 연주 활동을 하던 고봉경은 1931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고봉경의 유학 전 인터뷰는 같은 시기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홍난파, 변영로(卞榮魯, 1898~1961)와 함께 기사로 실렸다.

고봉경양은 삼 년 전 이화전문 음악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천품있는 피아니스트이다. 졸업 이후는 중앙악우회에 없지 못한 반주자로 그림자같이 행동을 같이하여 일반의 기억 깊은 분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경성에 있는 외국인으로 유명한 골만 부인 밑에서 지도를 받으며 재주를 닦아오다가 이번 8월 중에 미국 조지아주 매콘 조지야 위슬리안 대학으로 가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오리라 한다.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나오는 양은 겸손한 태도로 “아직 무엇 할 줄 압니까. 이제 공부나 하면 좀 나을는지요. 음악가 중에는 슈베르트를 좀 좋아합니다. 동행에 요행내 동생으로 금년 경도 동지사대학 법제, 경제를 마친 황경이와 같이 가게 됨으로 그리 적적치는 않겠습니다”고 한다. 오는 19일의 음악회는 벌써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 성황을 이룰 것이다.<sup>28)</sup>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의 음악을 좋아하는 고봉경이 유학을 가기 전 중앙악우회에서는 성대하게 고별음악회를 열어주었다. 경성공회

- 27) 캐나다 출신으로 스탠다드(Standard) 석유회사 한국 지사장인 남편과 식민지조선에 왔다. 그녀는 빈 음악원에서 로버트(Walter Robert) 교수에게 사사했으며,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이화여전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253-259.
- 28) “渡米熱 詩人과 樂人 三氏가 出發.” 『조선일보』 1931. 6. 7. 홍난파는 시카고 셔우드(Sherwood) 음악학교, 변영로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주립대학교(San Jose State University)로 유학을 갔다.

당에서 열린 이 음악회에 참여한 음악가들은 당시 음악계에서 영향력 있던 중진들로, 고봉경의 선생님, 선배, 동료, 후배로서 고봉경의 앞날에 대한 축하와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고봉경 도미 송별 음악회 프로그램<sup>29)</sup>

관현악 -----	중앙악우회 관현단
피아노 2중주 -----	김복실, 이순영 <sup>30)</sup>
〈슬라브행진곡〉	
남성사중창 -----	연진사중창
소프라노 독창 -----	김현순 <sup>31)</sup>
(1) 〈슬베이지의 노래〉 - 그리그	
(2) 〈부끄러움〉 - 주요한 가사	
피아노 독주 -----	고여만 부인
관현악 -----	중앙악우회 관현단
합창 -----	이화 음악과
(1) 〈낙화암〉 - 이순영 가사, 안기영 편곡	
(2) 〈박연폭포〉 - 안기영 편곡	
바이올린 독주 -----	채동선
(1) 〈야곡〉 - 쇼팽	
(2) 〈시칠리아와 리고동〉 - 프랑쿠르 작, 크라이슬러 편곡	
테너 독창 -----	현제명
〈라꾸넬라파스콜라〉 - 베라치니	
피아노 독주 -----	고봉경
〈일 트로바토레〉 - 베르디	
혼성 합창 -----	중앙악우회 합창단

29) “고봉경양 도미 송별 음악회,” 『조선일보』, 1931. 6. 18. 이 신문기사에서는 고봉경을 소개 하며 그녀가 동경 등지에서 음악을 공부하였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현재까지 찾아본 그녀의 이력에는 일본에서 유학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이 기사뿐 아니라 『삼천리』를 비롯한 여러 자료에서 고봉경이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30) 이 둘은 이화여전 음악과 제5회 졸업생

31) 이화여전 음악과 제7회 졸업생

여동생과 함께 장학금을 받아 자매가 나란히 미국 유학길에 올라, 대서특필되었던<sup>32)</sup> 고봉경 자매는 언니 고봉경이 조지아주 웨슬리언<sup>33)</sup> 음악학교(Wesleyan Conservatory)에서, 동생 고황경이 미시간주립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고봉경은 유학을 가기 전까지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협성여자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sup>34)</sup> 고봉경이 감리교 계열의 웨슬리언 음악학교로 학교를 결정하고 피아노 교수학으로 전공을 선택한 것은 유학 후 다시 협성여자신학교로 돌아와서 후학을 양성할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6] 웨슬리언 음악학교 시절의 고봉경<sup>35)</sup>



32) “교비생으로 뽑혀 미국가는 두 재원,” 『동아일보』, 1931. 4. 16.

33) 웨슬리언 감리교는 1841년 미국에서 조직된 감리교 종파로,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이름을 딴 학교로, 미국 내에 웨슬리언 이름이 붙은 여러 개의 학교가 있다. 감리교 청년회는 존 웨슬리의 고향 엠틀(Epworth, 영국 링컨셔주 링컨에서 37km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따와 ‘엠틀 청년회’라 부르고, 장로교의 청년회는 ‘면려회’라 부른다.

34) 1907년 개교한 감리교 협성신학교는 냉천동에 위치한 남성 교육기관이었고, 1921년 여성의 신앙 교육을 위한 여성 신학교가 충청로에 감리교 협성여자신학교로 세워졌다. 이후 두 학교는 협성신학교와 통합되어 1931년 감리교신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35) Wesleyan Conservatory of Music and School of Fine Arts, *DEIDONA: Wesleyan Yearbook*, (Macon: Wesleyan College, 1932), 42.

고봉경은 1931년 9월 3학년으로 입학하여 1933년 5월에 학위(Teacher's Diploma in Piano)를 받고 졸업하였다.<sup>36)</sup> 고봉경은 세레명인 글래디스(Gladys)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다녔고,<sup>37)</sup> 유학 중에 세계적 음악가인 파데레프스키(I. Paderewski, 1860~1941), 라흐마니노프(S. Rachmaninoff, 1873~1943), 크라이슬러(F. Krisler, 1875~1962) 등의 연주를 듣고 감동받았다.<sup>38)</sup> 고황경은 언니 고봉경의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이며 리더쉽이 강하다고 기억하는데,<sup>39)</sup> 이런 고봉경의 성격은 그녀가 미국에서도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림 7] 고봉경의 동아리 활동 모습<sup>40)</sup>



36) Wesleyan College, *CATALOGUE(1933-1934)*, (Macon: Wesleyan College, 1934), 106.

37) 여동생 고황경의 세레명은 에블린(Evelyn)이다. *The Korea Mission Field* 34/1 (1938), 22.

38) 고봉경, “학예회의 피아노 독주,” 48.

39) 림영철, 『바람 고황경: 그의 생애와 교육』, 84.

40) Wesleyan Conservatory of Music and School of Fine Arts, *DEIDONA: Wesleyan Yearbook*, 67 & 73. 수영팀 사진에서 아래 줄 오른쪽 끝, 문학회 사진에서 위 줄 서 있는 학생들 오른쪽에서 네 번째에 고봉경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고봉경의 밝고 쾌활함은 한국인이 한 명도 없던 외국의 학교에서 동양의 여학생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비롯하여 학생 행사에서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8] 학생신문에 실린 고봉경의 기사<sup>41)</sup>



고봉경은 조지아주에서 공부를 마치고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동생이 있는 미시간으로 지역을 옮겼다.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돌아오는 피아니스트 조은

41) 시니어 클래스가 후원하는 학생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음악원 학생들은 어린이 의상을 입고 장기자랑을 펼쳤는데, 고봉경은 여기서 최고의 아동복 상을 받아 우승하였다. "The prize for the best kid's costume was won by Miss Gladys Koh, Seoul, Korea." Wesleyan College, *The WATCHTOWER*, 10/4, 1932. 10. 21.

경(曹恩卿)이 1933년 여름 미시간대학교가 있는 앤 아버(Ann Arbor)에 들러 고봉경 자매와 김메리(1906~2005)를 만나고 그들의 안부를 전하는 기사가 실렸으며,<sup>42)</sup> 앤 아버 학생들이 시카고 박람회(Chicago Exposition)에 참여한 기사에서도 고봉경의 이름이 언급된 바 있다.<sup>43)</sup> 그러나 다음 해 봄, 고봉경은 귀국하게 되는데 1934년 3월 고봉경의 귀국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서도 “미시간대학에서 연구를 거듭 쌓아가지고”<sup>44)</sup> 돌아온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녀가 실제로 미시간에서 학교를 다녔는지, 다녔다면 어떠한 과정을 밟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고봉경은 미시간으로 간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고국으로 돌아왔다.

고봉경은 유학을 마치고 교명이 변경된 감리교신학교로 돌아와 일하였다. 중앙약우회에서 함께 일한 부츠 여사와의 인연은 계속되어 그녀와 같이 감리교신학교에서 합창단을 이끌었다. 감리교신학교 합창단은 경성방송국에서 방송할 때마다 부츠 여사가 지휘를 하고 고봉경이 반주를 맡아 한 팀을 이루었다. 당시 지휘자로도 활약한 부츠 여사와 박경호를 보면서 고봉경도 가끔 지휘를 맡아 하였다. 고봉경은 학교 합창단은 물론이고 세브란스 합창단이나 YMCA 합창단도 지휘한 적이 있다(부록 2 참조).

고봉경은 유학 후에 연주보다는 학교 일에 전념하였다. 감리교신학교의 교수를 지내면서 1934년부터 이화여전에도 출강하여 피아노뿐 아니라 종교음악 시간에 오르간도 가르쳤다. 그녀는 후학 양성으로 바쁜 일정 속에<sup>45)</sup> 개인의 음악회 출연보다 합창단 학생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 출연에 더 비중을 두었다.

42) “스포츠 樂手의 曹恩卿嬢 歸國,” 『동아일보』, 1933. 9. 2.

43)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하는 김메리, 고헥경, 고봉경 제 양과 이계원씨는 8월 23일 시카고 박람회에 참관 차로 왔다가 동 26일에 무사히 귀교하였다더라.,” “인 아바 학생들 박람회 참관,” 『신한민보』, 1933. 8. 31.

44) “米國서 音樂 專攻코 高봉경양 錦衣還鄕,” 『동아일보』, 1934.3.16.

45) 학교에서 근무하느라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지만, 멘델스존(F. Mendelssohn, 1809~1847), 베토벤(L. v. Beethoven, 1770~1827), 바그너(W. R. Wagner, 1813~1883)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고봉경, “학예회의 피아노 연주,” 48.

[표 2] 고봉경이 참여한 연주 목록

일시	장소	내용
1920. 6. 5.	종로기독교청년회관	여자강연회에서 피아노 독주
1925. 2. 28.	경성여고보 대강당	학생음악회, 음악선생 한기주 독창 외 학생 코러스, 고봉경 독주 등, 남성은 입장 사절
1926. 8. 7.	산수정공회당	음악무도 개최, 고봉경 독주 <대양의 파도>
1926. 8. 15.	경성여고보 대강당	경운회(경성여고보 동창회) 정기총회, 회비 60전, 고봉경 피아노 연주
1926. 11. 27.	종로기독교청년회관	음악대연주회, 기독교청년면려회 주최, 동아일보 후원, 고봉경과 이덕영 피아노 2중주 <산양군>, 경성현악단, 최호영, 홍재유, 박경호, 안대선 등 출연
1928. 9. 15.	종로기독교청년회관	동서음악대회, 조선주보 주최, 코리아재즈밴드, 홍재유, 안기영, 백명곤, 한기주, 안병소, 스투데니, 고봉경, 김영환, 최호영, 근화코러스 출연
1928. 9. 29.	종로기독교청년회관	안기영 독창회, 찬조출연: 부츠 부인, 고봉경 반주, 곡목: 몬티 <차르다스>
1929. 9. 7.	대구제일소학교 강당	현재명 독창회, 찬조출연: 부츠 부인, 고봉경 반주
1929. 9. 27.	경성공회당	현재명 독창회, 연희전문 음악부 주최, 동아일보 학예부 후원, 찬조출연: 부츠 부인, 고봉경 반주, 곡목: <파란 무곡의 서악>, <에스파냐의 야곡>
1929. 10. 5.	평양 백선행기념관	현재명 독창회, 평양기독교청년회 농촌연구회와 승전학생기독교청년회 음악부 연합 주최, 동아일보 평양지국 후원, 찬조 출연: 말스베리, 고봉경 반주
1929. 11. 4.	경성공회당	중앙보육학교 제2회 음악연주대회, 독고선, 홍난파, 안기영, 고봉경, 김영의, 홍재유 출연
1930. 2. 2.	승동예배당	창립 40주년 기념식, 기독교청년면려회 경기연합회 주최, 기독교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 후원, 고봉경, 현재명, 부츠 부인 등 출연
1930. 6. 12.	정동 모리스홀	안익태 첼로 독주회, 연희전문학교 음악부 주최, 부츠 부인, 고봉경 출연, 곡목: 슈베르트 <즉흥악>
1930. 11. 15.	종로기독교청년회관	중앙악우회 음악연주회, 관현 지휘: 부츠 부인, 합창 지휘: 현재명, 반주: 고봉경

일시	장소	내용
1931. 1. 23.	경성공회당	모교 후원 음악회(신축비 모금), 이전 동창회 주최, 전권위원: 고봉경, 정애식, 김합라 등
1931. 1. 31.	승동예배당	조선 기독교청년면려회 50주년 기념, 고봉경 연주
1931. 6. 19.	경성공회당	고봉경 도미 송별 음악회, 중앙악우회 주최, 조선일보사 학예부 후원, 회비 1원, 50전, 학생 30전, 고봉경, 고어만 부인, 김복실, 이순영, 현제명, 채동선, 연전 사중창단, 이화음악과 합창대, 중앙악우회 관현합창단 출연
1934. 12. 14.	종로기독교청년회관	직업여성 위안음악회,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 주최, 조선일보사 학예부 후원, 고봉경, 광정순, 광정선, 이유성, 부츠 부인, 황재경, 이순실 외 수인 출연, 회비: 무료 (단 여성에 한하여 초대권 가진 분만)
1936. 7. 10.	평양 백선행기념관	소프라노 박경희(朴景姬) 독창회, 반주 고봉경
1937. 7. 14.	부민관	부인강연회, 기독교청년회 주최, 헬렌 켈러(Helen Keller) 강연, 고봉경 연주 <sup>46)</sup>

위의 표는 고봉경이 그동안 참여했던 음악회 목록이다. 대부분은 고봉경이 유학을 가기 전에 출연한 음악회이다. 고봉경은 이화여전 피아노 전공 제2회 졸업생으로 이화에서나 음악계에서 많은 기대가 있던 인재였다. 그러나 고봉경은 미국 유학 이후 오히려 음악 활동이 감소하였다. 이는 학창 시절을 마친 고봉경이 신실한 신앙심,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크, 출중한 영어 실력,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이 토대가 된 인간관계, 민족에 열정이 가득한 집안 환경, 교수라는 안정된 직업, 타인을 살필 만한 경제적 여유 등 그동안 쌓아온 그녀만의 영향력을 발판 삼아 음악가라는 하나의 직업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를 위한 계몽 활동을 펼치고자 함을 시사한다.

46) 고봉경이 피아노곡을 연주하는 동안, 헬렌 켈러가 자신의 손을 피아노 치는 모양으로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 템포 그대로 맞추어 따라 하였다고 한다. “헬렌 켈러는 여성에게 무엇을 부르짖었는가(1),” 『조선일보』, 1937. 7. 16.

#### 4. 음악가 이후의 삶: 소신과 신념

고봉경은 어린 시절 황해도에서 살 때, 아버지가 병원에서 근무하며 그곳의 아픈 주민들을 돌보고 교회와 학교를 만들어 지역을 위해 봉사했던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고봉경 자매는 자신들도 기회가 되면 사회를 위해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고봉경은 감리교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틈날 때 부인들에게 동요를 가르쳤으며,<sup>47)</sup> 동생과 매주 한 번 씩 농촌 어린이들을 씻겨주거나 놀아주는 봉사활동을 하였다.<sup>48)</sup>

고봉경은 평소에도 농촌 지역과 부녀와 아동에 대한 봉사에 관심이 많았다. 취미는 꽃밭 만드는 것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새우젓, 고추장, 김치라고 말할 정도로 소탈하였다. 장차 여성들에 대해 일을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은 시골이라 하면서 만약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돈이 많다면 사회에 다 내놓고 일할 사람, 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줄 사람. 그러나 반대로 돈이 없다면 사업에 활동력 많은 사람, 음악가는 절대로 아니오, 도시에 나서지 않는 농사꾼 등이지요.”<sup>49)</sup>라며 솔직하게 말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남을 도우며 수수하게 살고 싶어 하던 고봉경은 여동생 고허경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고봉경, 고허경 자매는 서울 근교를 다니며 장소를 물색하였고, 1937년 7월 21일 서울 외곽의 농촌 지역인 잔다리(동교동) 일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복지시설인 경성자매원을 설립하였다. 당시 여동생은 미시간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고 돌아와 이화여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각자의 학교에서 자신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며 받는 급여로 운영 자금을 마련하여 무료강습을 열고 사회사업을 시행하였다.

47) 태화여자관에 사무소를 둔 가정부인협회에서 고봉경에게 동요 실연과 교습을 의뢰하였다. “위원 팔 명을 선정하여 조선 의복 제연구.” 『동아일보』, 1934. 4. 10., “가정부인월례회,” 『동아일보』, 1934. 4. 14.

48) 이원명, 『조선시대 역사인물의 재조명』, 251.

49) 고봉경, “전원의 천국을 세우고 싶다.” 『신인문학』 10 (1936), 45-47.

때는 소화 15년 7월 21일이다. 일지사변이 발발한 지 두 주일 만에 자매원이란 아기가 동교정(세교리)이란 강보 우에 탄생하였다. “일반 부녀자를 위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필요한 도덕의 함양, 지식의 획득, 취미의 향상을 도모하고 상조의 정신을 연마함으로써 각자의 행복과 사회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큰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기는 하였으나 (중략) 우리 사회의 여성에 관한 문제라면 무엇을 물론하고 전부 취급할 부인을 위한 기관이다. 우리 여성들은 다 - 서로 남남끼리가 아니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언니요 동생이다. 다정한 자매끼리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관의 이름을 자매원이라고 지었다.<sup>50)</sup>

고황경이 쓴 위의 글에서 경성자매원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 설립 목적 등을 알 수 있다. 고봉경 자매는 설립 전부터 그 동네를 부지런히 다니며 기관을 만들기 위해 나이 많은 주민들을 설득하였다. 3개월 이상 노력한 끝에 동네 공회당을 확보하여 공회당 건물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경성자매원은 총 7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서 운영되었다. 여아들을 위한 사회교육, 여성들을 위한 의료봉사, 여성과 노인을 위한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사업으로는 영아부, 유치부, 자매학원, 소녀부, 어머니 모임을 두었고, 사회사업으로는 경로부, 시료부(施療部), 임신부, 인사상담부, 영아관, 소녀감화원을 세웠다. 특히 자매학원에는 수신, 국어(일본어), 조선어, 창가 등의 과목을 두어 창가 시간에는 주로 찬송가를 가르치고 부르게 했으며, 이렇게 배운 노래는 아이들이 경로부에서 마련한 학예발표회 때 선보이는 기회를 주어 전 세대가 어우를 수 있는 오락 시간을 만들었다. 무료로 치료해 주는 시료부에서는 의사인 아버지와 세브란스 간호사들, 남대문교회의 봉사자들과 고봉경의 활약이 컸다.<sup>51)</sup>

사업 초기부터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경성자매원은 뜻있는 유지(有志)들의 관심을 독려하였다. 특히 음악을 전공한 고봉경

50) 고황경, “京城姉妹園,” 『삼천리』 13 (1941), 173-174.

51) 림영철, 『바람 고황경: 그의 생애와 교육』, 89, 94-95., 이원명, 『조선시대 역사인물의 재조명』, 235-236.

은 악기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아동들에게 창가 교수를 하기 위하여 뜻있는 인사가 풍금 한 대를 기증해 주길 바란다고 간청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소아과 의사 구영숙(具永淑, 1892~1976) 박사가 풍금을 기증해 주었다.<sup>52)</sup> 여의사 한소제(韓小濟, 1899~1997) 등 무료 봉사를 나온 의사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부족한 실정을 확인 후 적극적인 후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고봉경의 음악 활동은 경성자매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급격히 부진하더니 1940년 1월에는 자매원 사업에 매진하기 위하여 감리교신학교 교수직도 사임하였다.<sup>53)</sup> 고봉경은 오로지 경성자매원의 여성들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였으며 그녀들을 위해 음악을 활용하였다.

[그림 9] 경성자매원 앞에 선 고봉경(우), 고헌경(좌) 자매



52) 림영철, 『바람 고헌경: 그의 생애와 교육』, 99.

53) “여성 사업가의 이모저모 몸을 바치는 아름다운 일꾼,” 『동아일보』, 1940. 1. 6.

1942년 5월 1일에 개원한 영아관은 공덕동에 세를 얻어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 키웠는데 고봉경은 이 영아관에 매우 열성을 보여, 처음에는 총무를 맡아 일하다가 후에 영아관을 전담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다.<sup>54)</sup> 소녀심판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9세 미만의 소녀들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소녀감화원은 1943년 봄에 개원하였다. 동생 고향경이 미시간대학교에서 소녀범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리하여 이 소녀들에게 찬송가를 많이 가르쳤다. 노래를 크게 많이 부르게 하여 심리적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거의 찬송가에 묻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만큼 많이 가르치고 부르게 하였다.<sup>55)</sup>

이렇게 활약을 하던 경성자매원도 일제의 압박은 견디기 힘들었다. 총독부가 조선어말살정책으로 조선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여 조선어 과목을 폐지했을 뿐 아니라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고봉경 자매는 교육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업 역시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 선교사들도 추방당하고 이화여전에서의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비가 없으니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웠다. 경성자매원의 자료는 한국전쟁 중 아버지와 고봉경이 납북되면서 모든 자료가 소실되었다.

뜻밖의 해방을 맞은 조선은 조국을 재건하기에 바빴다. 모든 분야의 운영이 시급했다. 이에 고봉경은 기독교 사회사업 조직 총회 준비위원, 전조선 문필가대회 추천위원, 구미유학 모임인 양양회(洋洋會) 회장 등을 맡게 되었다.<sup>56)</sup> 특히 여자 경찰이 만들어지면서 고봉경은 가장 높은 계급인 감찰관이 되었다.<sup>57)</sup> 이때가 미군정 시기였고, 고봉경은 최종 선발된 16명 중 교육수준이 가장 높으며 영어가 능통했기에 선택될 이점이 충분했다.<sup>58)</sup> 1946년 5월

54) 림영철, 『바람 고향경: 그의 생애와 교육』, 103.

55) 림영철, 『바람 고향경: 그의 생애와 교육』, 106.

56) “금십구일, 기독교 사회사업조직총회,” 『조선일보』, 1946. 1. 19., “전조선 문필가대회,” 『동아일보』, 1946. 3. 11., “양양회 결성,” 『동아일보』, 1946. 8. 9. 외.

57) “여공 감찰관으로 고봉경씨를 승임,” 『조선일보』, 1946. 8. 30.

여자 경찰 간부들이 모집되었고 고봉경을 비롯한 양한나(梁漢拿, 1893~1976) 등 여경 간부들은 국립경찰학교에서 준비 훈련을 받았다.<sup>59)</sup> 그러나 고봉경의 재임 시기는 여자 경찰 과장인 김용제(金瑢濟)와의 갈등으로 오래가지 못했다.<sup>60)</sup> 고봉경은 1947년 7월 감찰관을 사임하고, 창립위원을 맡고 있던 조선 적십자사로 자리를 옮겼다.<sup>61)</sup> 고봉경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 고명우와 함께 납북되었다. 여동생 고헌경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 유럽으로 연설을 떠나 휴전이 되고서야 돌아왔다.

이처럼 고봉경은 미국으로 음악을 공부하러 다녀왔지만, 조국에 돌아와서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음악을 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아버지와 가족들의 민족에 대한 헌신과 봉사는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귀국 후 자신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음악을 활용하여 사회와 민족을 위해 일하였던 것이다.

## 5. 나가며

고봉경은 개화된 기독교 집안에서 근대교육을 받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교육에 굉장한 열성을 갖고 학교와 교회를 지어가며 한학과 영어, 음악 등을 골고루 가르쳐 딸들이 일제의 억압을 받는 가난한 민족을 위해 일하는 여성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이에 고봉경은 남성과 동일하게 교육받으며 경성여고보에 진학하여 사범과까지 마치고 이화여전 음악과를

58) “비화한 세대(123) 근정경찰 [54] 여경교육,” 『경향신문』, 1977. 5. 9.

59) “여경관 오백명 등장 우선 간부로 십육명 채용,” 『동아일보』, 1946. 5. 24.

60) 김용제가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고봉경은 면담을 거부하였다. “여경찰 내부에도 알력 강습 여경관들이 진정 내고 해산,” 『동아일보』, 1947. 2. 26.

61) 『조선일보』, 1947. 2. 26., 『조선일보』, 1947. 3. 19., 『경향신문』, 1947. 7. 3., 『민중일보』, 1947. 7. 3. 외.

졸업한 후 미국 웨슬리언 음악학교로 유학을 다녀왔다. 유학 전부터 협성여자 신학교에서 일하며 연주 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그녀는 귀국 후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일 외에 음악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여성들을 위한 강연회나 월례회, 봉사활동 등을 다니며 생활이 어렵고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도왔으며, 급기야 여동생과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인 경성자매원을 운영하며 열성을 쏟았다. 고봉경은 교수로 있던 학교까지 사임하며 자매원 사업에 매진하였으며 자매원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고봉경이 주도하였다.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는 1940년대가 되면 자매원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럼에도 고봉경은 영아원을 맡아 어린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전력을 다했다. 해방 후에는 여자 경찰 간부, 적십자사 활동을 하다가 한국전쟁 중 아버지와 함께 납북되었다.

지금까지 고봉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녀를 단순히 여성 피아니스트라고만 부르기에는 그녀가 노력했던 활동들이 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피아니스트가 연주 활동만 주로 했을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그녀를 정리하기에 고봉경의 삶은 다른 음악가들과 확연히 달랐다.

고봉경의 생애를 통해, 음악적 재능을 개인의 음악 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음악을 사회와 여성의 계몽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독교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보』

『민중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The Korea Mission Field*

고봉경. “악단의 화형으로 도미한 고봉경씨.” 『신여성』 6/1 (1932), 34.

\_\_\_\_\_. “전원의 천국을 세우고 싶다.” 『신인문학』 10 (1936), 45-47.

\_\_\_\_\_. “학예회의 피아노 독주.” 『중앙』 8 (1934), 48.

고황경. “京城姊妹園.” 『삼천리』 13 (1941), 172-176.

김성은. “일제시기 고황경의 근대체험과 사회사업.” 『이화사학연구』 41 (2010), 203-241.

남대문교회사 편찬위원회. 『남대문교회사』. 서울: 남대문교회사 편찬위원회, 1979.

림영철. 『바람 고황경: 그의 생애와 교육』. 서울: 삼형, 1988.

이원명. 『조선시대 역사인물의 재조명』. 서울: 경인문화사, 2015.

이정숙. 『쉽 없는 열정: 나라, 신앙, 교육을 향한 김필례의 삶』. 서울: 나무와숲, 2024.

이태영. 『나의 만남 나의 인생』. 서울: 정우사, 1991.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03.

정구충. 『韓國醫學의 開拓者』. 서울: 동방도서, 1985.

정석기. 『살아있는 등불』. 서울: 기독교문사, 1993.

조윤영. “식민지조선 음악단체 중앙악우회(中央樂友會) 정체성 연구.” 『음악과 문화』 35(2016), 83-11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역사관 자료 (방문: 2024. 9. 25.)

웨슬리언 콘서바토리 자료

Wesleyan College, *CATALOGUE(1933-1934)*. Macon: Wesleyan College, 1934.

Wesleyan Conservatory of Music and School of Fine Arts. *DEIDONA: Wesleyan Yearbook*. Macon: Wesleyan College, 1932.

Wesleyan College, *The Vetteropt: Annual of Wesleyan College*. Macon: Senior Class of Wesleyan College, 1933.

Wesleyan College, *The WATCHTOWER*(Wesleyan Newspaper), 10/4, 1932. 10. 21.

Wesleyan College, *Wesleyan Alumnae Magazine*, 1931.11.

부록 1. 피아니스트 고봉경(高鳳京, 1906.11.16.~?) 생애 및 주요 활동

1906년 11월 16일 경성(京城) 출생

1918년 황해도 수안군 남정리 은진여숙(隱眞女塾) 졸업

1923년 3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졸업

1925년 3월 경성여고보 사범과 졸업

1928년 이화여전 음악과 졸업 (음악과 2회)

1928년 4월 - 1929년 3월 정신여학교 교원

1929년 4월 - 1940년 1월 협성여자신학교(감리교신학교) 교원

1931년 9월 - 1933년 5월 미국 조지아주 웨슬리언 음악학교  
(Wesleyan Conservatory) 3학년 입학, 졸업

1934년 9월 - 1936년 2월 이화여전 음악과 교원

1937년 경성자매원 설립

1946년 국립경찰여자부 경무부 감찰관으로 임명

1947년 감찰관 사임, 조선적십자사로 이동

1950년 납북

## 부록 2. 고봉경의 라디오 방송 연주 목록

신문명과 기재 날짜	연주자	방송 곡목
조선일보 1926. 11. 22.	피아노 독주 고봉경 바이올린 최호영 반주 고봉경	〈소녀의 기도〉 독주 〈도입곡과 왈츠〉 반주
조선일보 1926. 12. 5. 동아일보 1926. 12. 5.	소프라노 김계전(金啓田) 반주 고봉경	〈비가(悲歌)〉
조선일보 1927. 2. 16.	소프라노 김계전 반주 고봉경	〈그리운 동무〉
조선일보 1928. 1. 17.	바이올린 최호영 반주 고봉경	〈도입곡과 왈츠〉 - 홈멜 〈조세란의 자장가〉 〈마주르카〉
조선일보 1928. 4. 16.	테너 고병덕(高秉德) 반주 고봉경	〈연(蓮)의 화(花)〉 - 슈만 〈자수패(子守唄)〉 - 모차르트 가극 〈리골레토〉 중에서
동아일보 1929. 5. 2. 조선일보 1929. 5. 2.	바이올린 홍난파 반주 고봉경	〈단조(短調) 사반악(司伴樂)〉
조선일보 1934. 6. 16.	감리교신학교 찬양대 지휘 부츠 반주 고봉경	〈주 찬양해〉 - 판스 〈먼길 가는 행객〉 - 로맨스 〈기도하였나〉 - 스콧트 〈나의 일〉 - 애슈포드 〈주가 부르시니〉 - 포스터
조선일보 1934. 11. 19.	감리교신학교 합창대 지휘 부츠 반주 고봉경	〈아침 해가 뜰 때〉 - 빈비 〈기도하였나〉 - 스콧트 〈대주재 높이세〉 - 하이서 〈나오라〉 - 슈베르트 〈왕 되신 우리 주〉 - 테슈네 〈항상 주를 신뢰하라〉 - 토렌스
조선일보 1935. 2. 9.	바이올린 2중주 바이올린 김생려, 부츠 반주 고봉경	〈안단테 칸타빌레〉 - 타르티니 〈미뉴에트〉 - 모차르트 〈라르고〉 - 헨델 〈로만스〉 - 홈멜 〈사라반느〉 - 헨델 〈아다지오〉 - 슈베르트

신문명과 기재 날짜	연주자	방송 곡목
조선일보 1935. 3. 23.	감리교신학교 합창단 독창 H.D.아펜젤라 지휘 부츠 반주 고봉경	합창 <거룩하신 구세주> - 멘델스존 독창 <저녁 노래> - 페들리 합창 <그는 아신다> - 로드히버 독창 <꼭 오늘> - 애벗트 합창 <주는 나의 목자> - 애슈포드 독창 <아름다운 산상(山上)> - 하커 독창 <예수 내 영혼의 애자> - 맥도걸
조선일보 1936. 12. 13.	감리교신학교 합창대 지휘 부츠 반주 고봉경	여성합창 <한 거룩한 밤 못별 아래> 남녀합창 <그 처음 노래> 남녀합창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여성합창 <저 높은 하늘 천사들> 남녀합창 <천사들의 노래가> 남녀합창 <참 반가운 신도여>
조선일보 1936. 12. 24.	세브란스 합창대 지휘 고봉경	<구주 나셨네> <그 계신 곳 보라> <천사 찬송하기를> <마구간> <주의 사랑> <하나님께 찬송하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조선일보 1937. 7. 6.	독창 임상희 반주 고봉경	가극 <세비야> 중에서 - 로시니 가극 <디노라> 그림자의 노래 - 마이어베어 <이상> - 토스티 <치리치리 빈> - 페스랄로차 <헛되고 헛됨> - 임동혁 <소렌토로 돌아오라> - 쿠르티
조선일보 1937. 9. 19.	YMCA 합창단 (여성합창) 지휘 및 반주 고봉경	<포(浦)의 조석(朝夕)> <가을 달> <은파를 넘어서>
조선일보 1937. 11. 6.	감리교신학교 찬양대 지휘 고봉경	합창 <수원(水邊)히 주께 영광 돌리라> 합창 <거룩한 이름 알게 하옵소서> 합창 <천사 찬미 노래> 남성 4중창 <더 가까이> 여성 합창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소서> 합창 <주는 나의 힘>

※ 각 신문의 날짜는 라디오 방송란에 개시된 첫 날짜를 의미함

## Abstract

## Pianist Koh Pong-Kyung's Musical Activities and Life

Cho Yoon-young

Koh Pong-kyung (Gladys Koh, 1906~?), a female pianist born in Kyung-sung in 1906, studied at Kyung-sung Girls' High School and Ewha Womans University, and studied in the U.S. to perform various activities. However, she was only known as a pianist of the Jungang Music Association, which is referred to as Korea's first orchestra.

Koh Pong-kyung was born into a faithful Christian family. Koh Pong-kyung's family was a chapel in Sorae Church, Korea's first church, and was a family that not onl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orean Christianity but also produced many independence activists, including Kim Maria. His father, Koh Myung-woo, who married in 1906 at the officiating of H. G. Underwood, and his mother, Kim Sera, emphasized Confucianism and patriotism and national movements, the traditions of the nation, while providing religious and modern education to their children. As a result, Koh Pong-kyung did not go to mission school when he was a child but received Japanese education at a government-run school. Even after going to Ewha to receive professional music education, he did not remain as Ewha's daughter, but experienced a bigger world in the United States, managed his younger sister, Koh Hwang-kyung, and 'Kyung-sung Jamaewon', and worked for the country and the people.

Throughout Koh Pong-kyung's life, it can be confirmed that her life was not limited to individual music activities, but she wanted to live a life devoted to Christianity and the nation by using music as a means of enlightenment for society and women in a broad sense.

Key Words: Koh Pong-Kyung, Koh Hwang-Kyung, Koh Myung-Woo,  
Wesleyan Conservatory, Kyungseong Jamaewon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24년 10월 15일	2024년 11월 1일~11월 30일	2024년 12월 1일

DOI 10.34303/mscol.2024.32.2.002